

# 연말 조류인플루엔자(AI) 취약지역 특별점검

- 철새 도래 급증에 따라 중앙점검반이 반복 발생 지역 점검 -

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

- ◎ 농림축산식품부(이하 농식품부)는 겨울철새가 급증했고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으며 최근 주변국 발생 등 위험도 증가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.
  - 환경부(국립생물자원관) 조사결과, 2019년 12월 겨울철새 서식 규모는 작년 동기(2018년 12월 132만수) 대비 38% 증가한 182만수로 최근 5년 내 최대치\*를 기록했다.
    - \* 최근 5년 이내 가장 많이 도래한 시기 : 2015년 12월, 181만수
  - 야생조류에서는 2019년 10월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8개 시·도\*에서 18건 검출되었으며, 대만과 베트남 등 주변국에서는 가금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.
    - \* 경북(4건), 충남(4건), 경남(3), 충북(2), 경기(2), 강원(1), 전북(1), 서울(1)
    - \*\* 2019년 10월 이후 대만에서 17건, 베트남에서 1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
- ◎ 농식품부는 위험시기에 철새도래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자 중앙점검반을 편성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반복 발생 지역(16개 시·군)을 연말까지 직접 점검한다.
  - 점검대상은 ①철새도래지 차량 통제구간, 차량 출입이 많은 ②가금류 도축장,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많았던 ③산란계·오리농가 등이다.
    - \* 조류인플루엔자 반복 발생 지역에 소재한 철새도래지 12개소, 가금류 도축장 10개소, 산란계·오리농가 16호 점검
  -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축산차량 진입 통제구간에 안내판과 현수막 등 홍보물이 효율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, 축산차량 접근 시 진입금지 음성 안내\*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지 등을 점검한다.
    - \*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, 밀집지역 등 위험도가 높은 철새도래지 79개소에 축산차량 접근 시 차량무선인식

